# “이야기 보따리 풀며 대나무 채반 만들어요”

●담양군 월산면 신평마을

## 郡 중장년 일자리 사업 ‘죽예공작소’ 마을 활기 되찾아

## 주민 9명 참여…주 1회 정교한 죽세품 제작 수익창출

60세 이상 중장년들이 담양군 월산면 신평마을에 모여 대나무를 엮으며 채반을 만들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은 예로부터 지천에 대나무가 널렸다. 제주에 가면 귤밭이 없는 주민을 찾는 게 힘들다는 말처럼 담양에서는 대나무에 둘러싸인 집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조상들은 플라스틱 등장 전까지 대(竹)를 활용해 세심하고 정교한 죽세품을 생산했다. 죽물시장의 활성화와 맞물린 시절에는 가가호호 대(竹)를 엮으며, 생업에 종사했고 대(代)를 이어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마술처럼 등장한 플라스틱 제품에 밀려 죽세품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다. 60세가 넘은 중년들이 모여 사라졌던 대나무 제품을 만들어내는 현장이 있다. 담양군 월산면 신평마을 앞 모정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9명의 주민들이 다정하게 앉아 대를 엮는다.

이 곳 신평마을 주민들이 대나무를 다시 손에 잡은 것은 올해가 5년째다.

신평마을은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지난 2020년부터 풀뿌리 공동체 사업을 진행했다. 마을 사업 초창기에는 석작 생산에 빼어난 실력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 기술을 습득했다.

전수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채반을 만들었다. ‘일상에서 실용적인 제품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 끝에 실생활에서 더 자주 쓰일 수 있는 채반으로 종목을 바꿨다. 초보자였던 주민들은 어려움을 느끼며, 완성품을 끝내 제작하지 못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대나무를 활용한 제품 만들기를 시도하자 이를 의미 있게 지켜본 담양군은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와는 다른 ‘60세 이상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했다.

강만형 이장은 “대나무 고장인 담양군의 전통 죽세품을 월산면 신평마을에서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지난 5년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9명의 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사시사철 꾸준히 주1회씩 대나무 채반 등을 만들며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신평마을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더 큰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사업을 통해 원주민과 귀촌인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마을에 원주민 이상으로 귀촌인 규모가 증가하자, 상호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참여자들은 개인과 마을의 연결 고리가 되는 대바구니를 엮으며 전통 대나무 공예를 되살리는 한편 서로의 애로사항을 털어 놓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장소에 모여 눈과 손으로는 채반을 엮고, 귀와 입은 서로의 살아가는 이야기장으로 활용하면서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했다.

강만형 이장은 “함께 모여 제품을 만들면서 서로의 생각과 필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도 수월하게 됐다”고 소회했다.

강 이장은 “사실 지금은 판로라고 할 만한 게 없다. 판매로 소득이 나도 소정의 금액에 미치는 정도여서 참여 회원에게 N분의 1로 나눠 지급한다”며 “그래도 약속한 작업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람도 쐴 겸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돌아온다. 마음이 그렇게 풍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9명의 회원들은 이제 당당히 이름을 내건 ‘월산신평죽예공작소’가 단순히 중장년 일자리 제공이라는 명분을 넘어, 공동체로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는 도약대가 되길 기대하며 바쁜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 보성군, 어르신 맞춤형 복지 ‘눈길’

## 소득 창출 기회·첨단 IT 장비 활용 돌봄체계 구축 호응

보성군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쾌적한 생활 환경, 소득 창출 기회, 최신 IT 돌봄 장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다채로운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일상을 세심히 챙기며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표 사례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불 세탁을 힘들어한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 시행한 ‘이불 빨래방’ 사업이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눈길을 끈다. 보성군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등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통해 현재 2천760명의 어르신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3천15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성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해 100명의 어르신이 안정된 소득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첨단 IT 장비를 활용한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내 설치된 1천492대의 응급 안전 장비와 AI 돌봄 로봇 100대를 통해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실신 또는 낙상하는 경우 119와 생활지원사에게 알리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득량면에서 저혈당 쇼크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한 어르신이 생활지원사의 발빠른 조치와 응급치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바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통합 돌봄 부서를 통해 재택 의료 서비스, 사회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역 사회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언 기자

# 조상래 곡성군수, 취임 후 첫 업무 보고 진행

## 68건 현안·199건 계속사업 등 역점 추진사업 논의

조상래 곡성군수가 취임 후 첫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며 민선 8기의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사진〉

3일 곡성군에 따르면 조상래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부서별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군수의 전반적인 군정 이해를 돕고,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8건의 현안사업과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199건의 계속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고, 집행 상황 점검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주거환경 개선사업 ▲곡성 스테이션1928 운영&돌아오지촌 조성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곡성토란 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운곡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삼인동 산림휴양숲 조성사업 ▲신 소득과수 육성 및 생산단지 조성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이다.

아울러 ▲전 군민 무료 버스 운행 ▲곡성 전지역 정원 프로젝트 ▲스마트팜 거점 조성사업 추진 등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43건의 공약사업과 각 부서에서 발굴한 새로운 시책 98건도 함께 검토했다.

곡성군에서는 공약사업 43건에 대해 향후 세부 검토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며, 현안사업과 계속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상래 군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늘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보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접수

## 15일까지…위법행위·예산 낭비 사례 등

광양시의회는 3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시정 주요시책 개선 사항, 시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접수된 의견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시민의견 접수는 광양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이 행복한 광양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광양시 행정기구와 12개 읍면동,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수탁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 5만t급 ‘아스카Ⅱ호’ 여수항 입항

## 1천여명 탑승객 해상케이블카 등 여수 관광 만끽

여수항에 지난 1일 일본 선사 유센크루즈의 ‘아스카Ⅱ호(사진)’가 입항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아스카Ⅱ호는 5만t급, 길이 241m에 달하는 국제크루즈로, 이날 승객 496명과 승무원 502명 등 총 998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이순신광장과 해상케이블카, 진남관유물전시관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여수를 대표하는 간장게장, 갓김치, 불고기정식 등을 맛보며 여수의 다양한 매력을 즐겼다. 여수시는 시립국악단 취타대의 환영 공연을 비롯해 터미널 내 임시 환전소 설치, 문화관광해설사·일본어 통역 인력 배치, 여수 특산품 팝업스토어 등을 지원했다. 또한 전통부채에 한글 이름을 적어 선물했으며, 제기차기, 딱지치기, 활쏘기 등 전통놀이체험마당을 열어 승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스카Ⅱ호는 여수에서 약 9시간을 머무른 후 기항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국제크루즈 입항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며 “크루즈 기항 관광은 잠재력이 큰 산업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항에는 2025년 3월 미국 선사 노르웨이지안 ‘스카이호’의 입항이 예정돼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 구례군, 道지방정원 제3호 지리산정원 개장

## 광의면 일대 193㏊규모 숲정원

구례군은 “최근 전남도 지방정원 제3호인 지리산정원을 개장했다”고 3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구례군의원, 도의원과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리산정원 개장을 축하하고 정원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리산정원은 구례군 광의면 일대 193㏊규모로 야생화테마랜드, 지리산자생식물원, 구례생태숲, 숲속수목가옥 등 여러 시설을 포함한 공간이다.

구례군은 이 중 10.89㏊에 206종 14만3천593그루의 식물을 가꿔 하늘정원, 별빛숲정원, 어울림정원, 와일드정원, 프라이빗정원 등 5개의 주제 정원으로 이뤄진 숲 정원을 조성했다.

구례군은 지난 10월10일 전남도 지방정원 제3호로 지리산정원을 등록했다. 숲 정원으로는 전남도에서 유일하다. 정원에는 탐방안내소와 유리온실, 음수대, 야외카페, 숲속 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돼 있다.

김순호 군수는 “지리산정원을 구례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 고흥유자축제 팝업쇼, 순천·여수서 ‘인기’

## 인생네컷 부스·버스킹·다양한 기념품 눈길

고흥군이 고흥유자축제 사전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팝업쇼가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순천대학교 열린광장에서 제4회 고흥유자축제 팝업쇼를 개최했다. 이번 팝업쇼에서는 인기 있는 ‘인생네컷’ 부스를 설치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버스킹 공연과 함께 무료 사진 촬영을 즐겼다. 고흥 유자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기념품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유자축제 풍선, 스노우볼, 스티커, 마그넷, 포스트잇 등 관광 기념품이 관람객들에게 제공돼 축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다.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여수시 해양공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팝업쇼가 진행돼 인기를 끌었다.

한편 제4회 고흥유자축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고흥의 특산물인 유자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흥=최봉환 기자